

국내 최초로 열린 소련도서전시회

국립중앙도서관서 6월 4일까지...각 분야별 1천여점 선보여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서 열고 있는 소련도서전시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대규모적인 소련도서전시회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소련의 국립문예출판사와 한국의 우경문화재단(대표이사 전략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풍요로운 예술의 나라-소비에트연방공화국'으로, 전시될 도서는 문학·예술·학술·이동·교과서·사전·기행사진집 등 1천여권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문학부문에는 톨스토이·안톤 체홉·고리끼 등 대가들의 작품집과 14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소련문학의 대표작품들이 총망

라래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번역작품도 전시된다. 예술분야에는 「피카소화집」 「푸시킨미술관 도록」 등이 눈길을 끌며, 전시도서들 대부분의 표지나 삽화가 아름다운 것이 특징적이다.

모스크바·레닌그라드·알마타 등지에서 열린 한국도서순회전시회도 예정돼 있으며, 도서전 행사와 함께 내년말까지는 김동리·황순원·이청준씨 등 국내 문인 20명의 단편과 소련작가 20명의 작품이 양국에서 동시에 번역 출판될 것이라는 게 주최측의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소련에서는 안자파리제 문예출판사 사장과 재소 한인작가 아나톨

리 김이 내한했다.

불교를 주제로 한 서적전시회

전국불교서적전시회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조계사 내의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불교서적 유통의 활성화와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불교출판협의회 주최로 개최되는데, 50여개 출판사가 불교의 의식·역사·교리 및 음악·문학 등 불교를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관련서적 1천여권을 출품·전시하며 판매도 한다. 이번에 전시된 책들 가운데에는 국내 불교계의 인물과 사상을 소개한 「한국불교인물 사상

사」와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등도 포함돼 있으며, 저명한 스님들의 설법을 수록한 범어집과 부처의 수행법을 소개한 책자들도 눈에 띈다. 이밖에도 불법이 아닌 사원건축·사찰음식·불교음악 등 불교와 관련된 각종 서적들도 함께 전시돼 전시기간 동안 10%포인트 할인판매된다.

서울에서의 전시회가 끝나면 전국주요도시에서 순회 개최될 불교서적전시회는 6월에 대구, 7월에는 전주에서 열리게 되며, 부산을 비롯한 각 지방 도시에서의 개최도 계획돼 있다. 또한 주최측인 불교출판협의회는 '불교서적 총도서목록' 발간도 할 예정이다.

현행 교과서문제 학술발표회

지난 5월 17일 삼성출판박물관이 열었던 교과서특별기획전 학술발표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용선박사(한국교육개발원)와 이종국씨(대

한교과서 출판부차장)가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교과서의 본질과 그 역할'이란 논문을 통해 홍용선박사는 대중문화로서의 문학과 예술이 무시된 교과서의 내용이 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더러, 교과서 이외의 것은 무조건 틀린다는 식의 배타적이고 맹목적인 '단편 교과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종국씨도 '교과용도서 체제의 변천'에서 우리 교과서는 내용만 아니라 字體·편집 및 문장 등에서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음을 강조했다.

컴퓨터조판이 보편화된 지금 명조체만을 고집한다든가, 고정된 편집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것이 이종국씨의 주장인데, 전문요원의 양성교과서연구를 담당할 사회적 차원의 교과서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새 서평지 「서평문화」 창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서 계간지 형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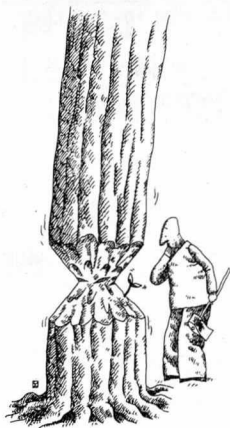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李元洪)는 건전한 서평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문화가죽운동 확산과 객관적 서평을 통한 서평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간지형태로 분기마다 간행될 「서평문화」를 창간했다.

서평대상 도서의 선정은 김대환 교수(이화여대·위원장)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서평위원회에서 맡게되며 한 종당 25매에서 30매 내외의 서평원고를 게재하게 된다. 그 대

상은 선정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된 국내제작 및 번역도서로 인문·사회과학, 청소년 교양, 아동분야의 도서를 선정대상으로 하는데, 주제와 사상이 분명하고 비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회성과 시의성 또한 고려된다. 이번에 발간된 제1집은 최근 화제작으로 부상한 이문열씨의 장편소설 「시인」 등 문학예술, 생활과학 환경, 일반교양분야 외에 문학작품에서의 성표현에 관한 문제로 쟁점이 된 신예 하일지씨의 「경마장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의 만남



우리는 전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기업과 출판계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 광고뿐 아니라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도 가슴에 남아 있는 푸른 소나무, 그곳에는 반드시 일러스트뱅크의 손길이 있습니다. 7년동안의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는 여러분의 디자인을 더욱 빛내드릴 것입니다.

- 출판 및 광고 일러스트, 캐릭터 개발
- 표지디자인
- 포스터, 카달로그, 캘린더 등 기획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2133번지 상아빌딩 201호
TEL : 591-8463/591-7565 (FAX)

가는 길' 등 신간도서 22종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서평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서 간행한 서평지.

출판협동조합, 전국서적상조협연합회와 '서평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서평정보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서평위원은 강영계(이화여대), 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태동(서강대), 이현희(성신여대), 차범석(극작가), 허창성(평화출판사)씨 등이 위촉됐다.

한국아동문학작가상 수상자 선정

제13회 한국아동문학작가상 수상자로 작품부문에 허호석·배용길씨가, 공로부문에 홍은순씨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許씨의 동시집 「바람의 발자국」과 裴씨의 동화 「행복이 꽃피는 교실」로 시상식은, 오는 6월 8일 하오 5시 한국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오늘의 작가상' 李甲洙씨 선정

시인 李甲洙씨(32)가 등단 1년만에 제15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계간 「세계의 문학」 여름호에서 신인추천을 받았던 李씨는, 같은 잡지 올 여름호에 게재될 시 「神은 망했다」 등 15편의 작품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이문열·박영환·강석경씨 등이 수상한 오늘의 작가상을 이례적이게도 신인으로서 수상하게 된 이갑수씨는, 지난 85년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자연과학도 출신이란 점에서도 드문 경우인데, 군제대 후 시에 입문한 무역회사 직원이기도 하다.

장애인 문예지 「솟대문학」 출간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한국장애인 문인협회(회장 方貴姬)에서 장애인 문인과 장애인 문학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계간문예지 「솟대문학」을 펴냈다. 운보 金基祿화백이 題字를 쓴 창간호는 특집으로 '장애인 문학의 현주소'와 '문학속에 나타난 장애인'을 다루고 있으며, 최초의 장애인 문인으로 고 구분용 화백을 조명했다.

교보문고 매장보수공사로 임시휴업

금년 말까지... 외서는 별도 매장서 판매예정



교보문고를 찾던 많은 독자들. 내년초 새단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교보문고가 개장 10주년을 맞는 오는 6월 1일부터 매장 보수공사를 위해 금년 12월 중순까지 문을 닫게 되었다. 신임 김병수사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점의 현대적인 새단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사 후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간배치로 인해 훨씬 편리하고 쾌적한 서점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81년 개장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이용객의 수요와 출판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부분적인 매장확장을 해왔으나, 이로는 부족해 전면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 교보문고측은 휴업기간 중에도 외국도서의 경우

부근에 따로 마련된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국내도서는 출판사가 반품을 원치 않는다면 경기도소재 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서권, 반응 좋아 목표량 무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발행된 도서상품권이 좋은 반응을 얻어 널리 유통되고 있다.

발행사인 한국도서보급주식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발매가 시작된 지 한달만인 5월 15일까지 모두 3만9천3백92장의 도서상품권이 팔려나가는 예상 밖의 판매실적을 올



렸다는 것. 지금까지의 실적을 감안한다면 올해의 판매목표량인 20만매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서점도 1백50여 서점으로 제한한 계획을 수정해 서련산하 희망서적을 모두 받아들여 현재 서울 2백70개, 지방 4백43개 서점 등 총 7백13개 서점이 도서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어 제약요소로 지적되었던 유통의 미진함도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어린이날을 전후한 특수와 기업체들의 각종 행사 기념품으로 상당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도서 판매의 증가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물풍토

조성에 큰 몫을 해낼 것으로 출판·서점계는 판단하고 있다.

6월의 문화인물 '다산 정약용'

문화부는 6월의 문화인물로 茶山 정약용을 선정해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산 정약용을 6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것은 서구문명이 들어온 조선후기에 利用厚生·實事求是를 기본으로 한 실학을 체계화하고 이러한 정신을 몸소 실천한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실적인 면에서 크게 낙후되었던 당시의 정치·사회구조를 개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양의 근대기 술문명을 받아들이고자 한 그의 부국강병과 利用厚生의 정신은 선각자의 사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牧民心書」 「經世遺表」 등 다수가 있다. 다산의 동상과 기념비는 서울 남산에 동상이, 경기 남양주군 묘앞에는 기념비가 건립돼 있으며, 이번 주요기념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다산 문화유적지(전남 강진 등) 순례
- ▲기념강연회(22일 국립중앙박물관)
- ▲'수원성과 다산' 설명회
- ▲'목민심서' 읽기운동 및 독후감 공모
- ▲다산 유물전시회
- ▲다산과 茶에 대한 현시순례(다산초당) 및 강연
- ▲연구논문집 발간 등.

"아이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험도감'은 자연의 길잡이입니다.

자연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쩌다 야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할 할 뿐.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배낭 꾸리는 법, 텐트 치는 법, 지도 읽는 법,
요리법, 응급 치료법, 야생 동·식물의 세계...
참교육의 한마당인 자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토우치 아이 글 / 마쓰오카 다스히데 그림 / 김창원 옮김



1991년 8월 8일 설악산에서 지구촌 보이 스카우트의 대륙제인 세계잰버리가 열립니다. 야외 생활을 통한 몸과 마음의 단련..... 여기에 잰버리를 더욱 신나게 해줄 우리들의 친구 「모험도감」, 야외생활 길잡이 「모험도감」은 대 자연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주요내용

- | | |
|---|---|
| <p>걷는다</p> <p>신발을 고른다
배낭 꾸리기
지도 읽기</p> | <p>만들며 논다</p> <p>나무그릇 만들기
눈 오는 날의 놀이
도구를 손에 익히자</p> |
| <p>먹는다</p> <p>밥짓기
가져갈 취사도구
먹을 수 있는 산나물</p> | <p>동물과 식물을 만난다</p> <p>가까운 곳의 나무 관찰
동물의 발자국
독초와 독버섯</p> |
| <p>잔다</p> <p>텐트 치는 법
필요한 조명 기구
야외 화장실</p> | <p>위험에 대처한다</p> <p>길을 잃었을 때
머리 배가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약초</p> |

진선출판사 2도 인쇄 / 340쪽 / 값 4,800원
전화 720-5990 · 1